

## 구조를 잃은 하루

### 생활시간조사로 본 '쉬는 청년'의 24시간 — 시간활용·생활리듬 고립

[2부작 중 2편 · NEET 청년의 하루]

같은 NEET라도 단일 집단이 아니어서, 20대 초반은 절반가량이 '비활동형', 20대 후반은 구직형이 74%, 30대는 가사·육아형이 다수임. 본 편이 다루는 NEET, 특히 20대 초반 '비활동형'은 앞선 두 편(No.313-320)이 가리킨 '평균 뒤에 가려진 이탈 코호트' — 자연이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고착되는 청년 — 의 미시적 초상임. NEET의 하루에는 '낮의 구조'가 부재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282분→372분으로 늘어 '시간 빈곤'이 아닌 '관계 빈곤'의 양상을 보임. 취약은 고졸이하에 집중됨. 이에 단일 정책이 아니라 유형별 맞춤 지원과 고졸이하 표적 관리가 필요하며, 비활동형에는 취업 이전에 생활구조·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함.

####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쉬는 청년'을 '몇 %'라는 한 덩어리로 다루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무엇이 회복을 막는지 알 수 없어, 하루 시간활용으로 NEET 내부를 분해할 필요

- (의의적 맥락) '쉬는 청년'이 정책 화두이나, NEET울만으로는 그들이 누구인지·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무엇이 회복을 가로막는지 알 수 없음
- (기존 인식의 한계) NEET를 단일 비율로 다루면 구직 중인 청년·돌보는 청년·멈춰 선 청년이 한 칸에 섞여, 정책이 '평균적 NEET'를 향하게 되고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들어맞지 않게 됨
- (분석 틀) NEET(비재학·비취업) 청년을 무직사유에 따라 세 유형(구직형·가사·육아형·비활동형)으로 분해하고, 생활시간조사로 24시간 시간활용·하루 생활리듬·함께한 사람(고립)을 분석함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시간량·시간대·함께있던사람 파일, 9월 기준), 분석 대상은 20~34세 중심임

분석 방법: NEET 3유형 분해와 '고립' 측정 NEET(비재학·비취업)를 무직사유로 세 유형으로 분해함 — 취업준비=구직형, 자녀양육·가사=가사·육아형, 그 외(심·심신장애·기타)=비활동형. '고립'은 시간일지의 '함께한 사람' 기록을 이용해 식사·여가교제 등 동반자가 기록되는 활동에서 혼자 보낸 시간으로 측정함. 24시간 구성은 2014~2024, 생활리듬 고립은 분류 일관성이 확보되는 2019~2024를 사용함.

[용어 주의] 본 편의 '비활동형'은 무직 사유가 정년·심신장애·기타인 경우를 포함하여, 이슈브리프 No.313의 '쉬었음'보다 넓은 범주임. 또한 활용 자료가 서로 다르므로(생활시간조사 vs 경제활동인구조사), 두 글의 비중(%) 수준은 직접 비교하기보다 각 자료 내 '추세' 또는 '구조'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예) 20대 후반 NEET 내 비중을 본 편은 '비활동형 20% 안팎', 이슈브리프 No.313은 '쉬었음 40%~50%'로 제시하나, 이는 정의·자료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 결과 간 모순이 아님.

- (시리즈 연결) 본 편은 청년 이행을 세 배율로 본 연작의 마지막임 — 이슈브리프 No.313(거시·동태)이 ‘어느 세대가 언제 막히는가’를, 이슈브리프 No.320(중시·지형)이 ‘청년기 어디서 지형이 갈리는가’를 보였다면, 본 편(미시·하루)은 ‘그 멈춤이 하루에 어떻게 새겨지는가’를 보임. 특히 본 편의 비활동형 청년은 이슈브리프 No.313·No.320이 가리킨 ‘흡수 경로 이탈자’의 하루임

## 02 분석 결과: 세 얼굴, 사라진 낮의 구조, 그리고 고립

### ‘쉬는 청년’은 한 단어지만, 그 안에는 세 개의 다른 얼굴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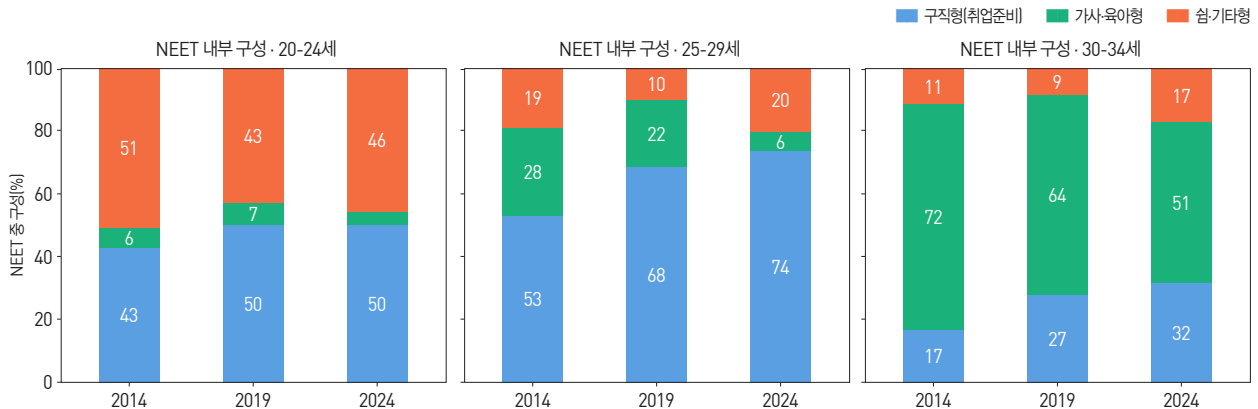


그림 1 | NEET 내부 분해: 구직형 / 가사·육아형 / 비활동형 심·기타형(2014→2024)

NEET=비재학·비취업. 무직사유로 분해(취업준비=구직형 / 자녀양육·가사=가사·육아형 / 정년·심신장애·휴폐업·기타=심·기타형)

- 20~24세 NEET는 절반 안팎(43%~51%)이 구직도 가사도 아닌 ‘비활동형’ 심·기타형임
- 25~29세는 구직형이 2014년 53% → 2024년 74%로 급증, 30~34세는 가사·육아형이 다수 → 같은 NEET라도 처방이 같을 수 없음
- (연령 이동) 비활동형(20대 초반) → 구직형(20대 후반) → 가사·육아형(30대)으로, 연령에 따라 멈춤의 성격 자체가 이동함
- (구직형 해석) 25~29세 구직형 74%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으나 진입하지 못함’을 의미 → 매칭·구직기간 단축이 효과적인 집단
- (비활동형 경계) 20대 초반 비활동형은 구직도 가사도 아닌 상태로, 방치 시 장기 고립으로 곤을 위험이 가장 큼. 이는 이슈브리프 No.320의 ‘진입 지연’과 이슈브리프 No.313의 ‘상흔·고착’이 만나는 지점으로, 단면 평균에서는 결국 ‘흡수’로 보이지만 이 집단이 바로 흡수되지 못하는 이탈 코호트임 — 따라서 비활동형은 연작 전체에서 정책의 1차 표적임

### 일자리가 비운 NEET의 낮 시간이 미디어·여가와 수면으로 채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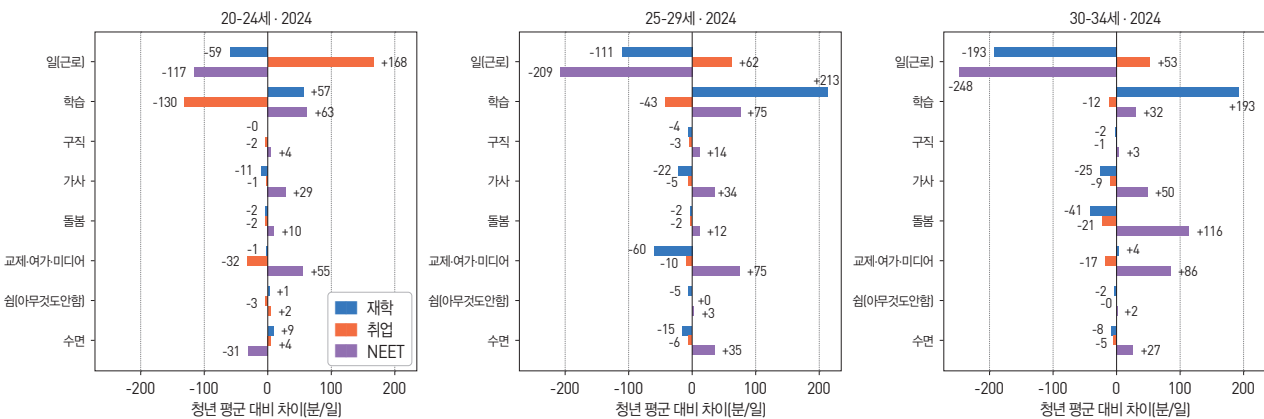


그림 2 | 상태별 시간활용 특징: 같은 연령 청년 평균과의 차이(분/일, 2024)

같은 연령 청년 평균과의 차이로, 양(+)의 값은 해당 활동 시간이 평균보다 많음을, 음(-)의 값은 평균보다 적음을 의미

- 같은 연령 평균과 견주면 NEET는 일(근로)이 크게 적고(25~29세 -210분), 교제·여가·미디어가 가장 많으며 수면도 김
- (대체 구조) 비는 근로·학습 시간이 비생산적 활동(미디어·여가)과 수면으로 재배치 되는 것으로, 단순한 여가 증가가 아니라 활동 구조 자체의 이동임
- (연령차) 20대는 미디어·여가로, 30대는 돌봄(가사·육아)으로 시간이 쏠려 개입 지점이 연령별로 다름

NEET의 하루에는 학교·직장이 만들어 주던 ‘낮의 구조(리듬)’가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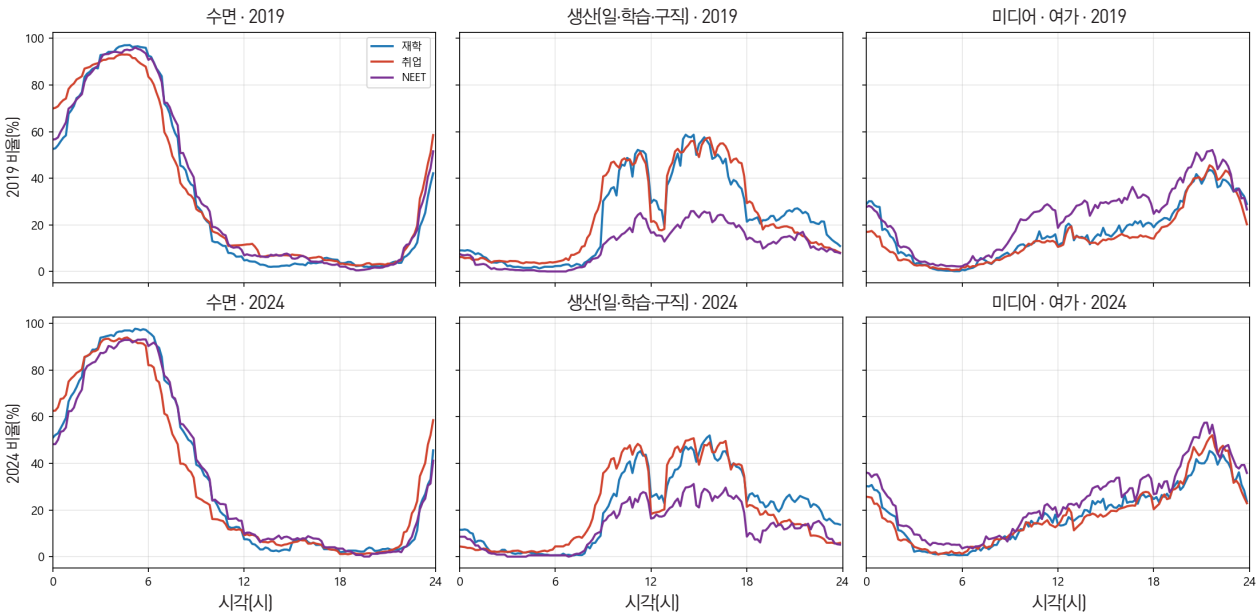


그림 3 | 상태별 하루 생활리듬: 시각대별 활동 비율(20~29세, 2019·2024)

10분 단위 주행동. NEET(보라색 실선)의 생산활동 곡선이 낮고 평탄 - 낮의 생산적 구조 결여

- 취업·재학 청년은 낮 시간대 생산활동(일·학습·구직) 비율이 50% 안팎으로 상승하나, NEET는 정점이 26%(2019)·31%(2024)에 그치고 종일 평탄함
- (리듬의 의미) 학교·직장은 소득원일 뿐 아니라 하루를 구조화하는 장치이며, 그 부재가 수면·식사 등 생활리듬 전반의 이완으로 이어짐
- (지속성) 미디어·여가 곡선은 종일 가장 높으며, 2019·2024 두 시점 모두 동일 패턴이 반복됨 →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특성임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고 더 늘어, ‘관계 빈곤’의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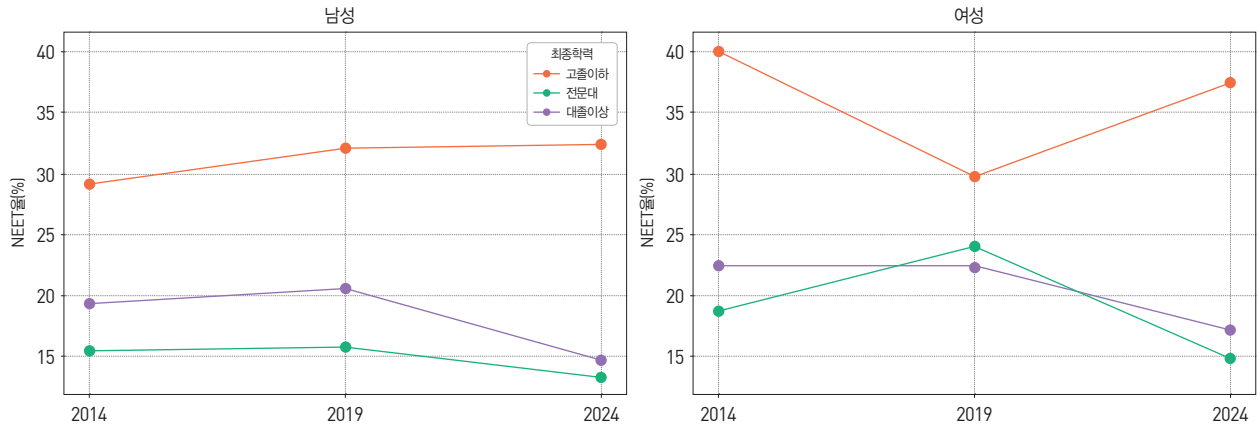


그림 4 | 상태별 ‘혼자 보낸 시간’(20~29세, 2019·2024)

동반자 인덱스1=혼자. 동반자 기록 활동(식사·여가·교제·가사·돌봄 등) 한정. 2014는 변수명 형식차로 제외

- 동반 활동에서 NEET가 혼자 보낸 시간은 2019년 282분 → 2024년 372분(약 6시간)으로 증가, 취업·재학 청년보다 김
- (비율 vs 절대시간) 기록활동 중 혼자 보낸 '비율'은 집단 간 비슷하나(약 54%~60%), NEET는 '절대 시간'이 가장 길고 더 늘어 고립이 누적됨
- (해석) 시간 부족(시간 빈곤)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의 부재(관계 빈곤)로, 취업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관계·일상 회복이 선행되어야 함

❗ **취약은 '청년 일반'이 아니라 '저학력'에 집중 — 고졸이하 NEET율이 두 배**



❗ **그림 5 | 성별·최종학력별 NEET율 추이(20-29세, 2014→2024)**

NEET=비재학·비취업. 고졸이하의 NEET율이 전 기간 가장 높고 격차 지속

- 고졸이하 청년의 NEET율은 전 기간 최고로 전문대·대졸의 두 배 수준임(2024년 남 32%·여 37% 대 13~17%)
- (성별 차이) 남성 고졸이하는 32% 안팎에서 고착, 여성 고졸이하는 변동이 크나 2024년 37%로 재상승 → 저학력 여성의 위험이 다시 부각됨
- (함의) '청년 일반'을 향한 정책은 저학력층을 놓치기 쉬움 → 직업계고·고졸 이행 추적이 표적의 핵심임

**03 시사점: 유형별 맞춤과 저학력 표적**

❗ **NEET 정책의 첫 질문은 '일자리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 청년은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가'**

- 본 편의 처방은 앞선 두 편과 한 묶음으로 읽어야 함. 이슈브리프 No.313이 코호트별 상흔을, 이슈브리프 No.320이 연령·성별 지형을 진단했다면, 본 편은 그 위에 '유형별 하루'를 더함. 세 편의 공통 원칙은 — 대다수는 지연 후 흡수되므로 총량 관리로 충분하나, 흡수되지 못하는 소수(비활동형·상흔 코호트)에게는 취업 이전에 생활구조·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순서의 원칙) 비활동형은 취업 이전에 생활구조·관계 회복이 먼저, 구직형은 빠른 매칭, 가사·육아형은 돌봄 완화·재진입 → 같은 'NEET 지원'도 출발점이 달라야 함
- 분석 결과(진단)와 처방을 1:1로 대응함

NEET 유형 / 표적	진단(분석 결과)	정책 방향	구체적 수단
비활동형(20대 초반)	구직·학업 안 함, 미디어·수면·고립	생활구조·관계 회복 우선	청년센터 일상회복 프로그램, 심리상담, 또래·멘토 연결
구직형(20대 후반)	취업준비 74%, 구직시간 증가	구직기간 단축·매칭	직무훈련·채용 연계, 채용정보·면접 지원
가사·육아형(30대)	돌봄으로 노동시장 이탈	돌봄 부담 완화·재진입	돌봄서비스, 재취업 훈련, 경력복귀 지원
저학력 청년(전 연령)	고졸이하 NEET율 2배	취업촉 표적 관리	고졸 이행 추적, 직업계고·취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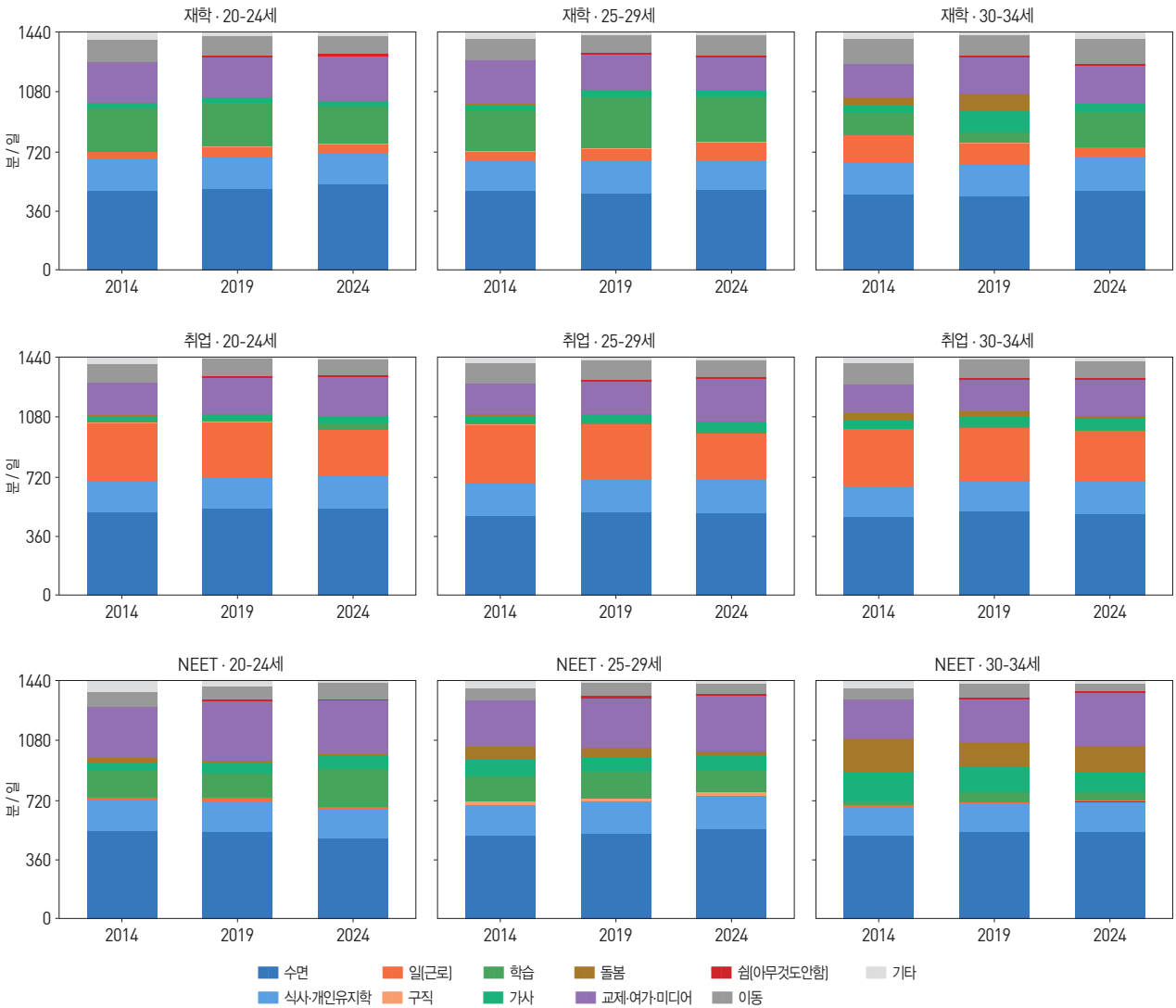
(연작 정렬) 본 편의 NEET 유형은 앞선 두 편의 표적과 1:1로 대응함 — 비활동형 ↔ No.313 초기 진입 실패군·장기 고착군, 구직형 ↔ No.313 '구직 병목군', 가사·육아형 ↔ No.320 '30대 여성' 표적. 세 편이 동일한 분류를 공유하므로, 세 브리프의 제언은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집행할 수 있음.

- (교차 적용) 고졸이하 청년은 세 유형 모두에서 위험이 높아, 유형별 지원 위에 '저학력 표적'을 교차로 엮는 설계가 필요함

**별첨 청년 상태별 24시간 시간활용 구성 — 원자료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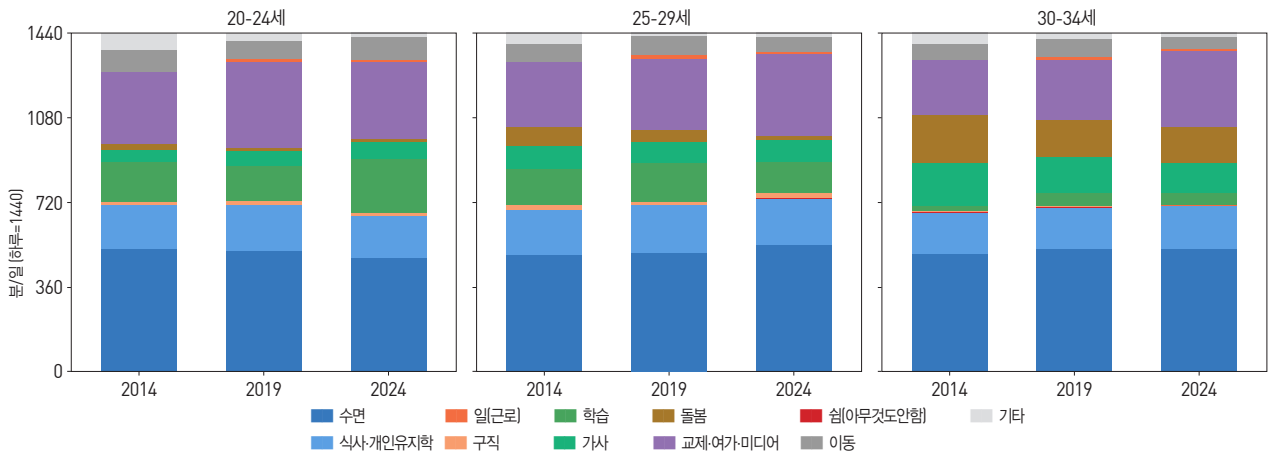
- 본문(02절)이 상태 간 ‘차이’를 부각한다면, 별첨은 재학·취업·NEET 청년의 하루(1,440분)를 11개 활동의 ‘절대 구성’으로 제시함 — 각 상태가 하루를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를 직접 비교하기 위한 보조자료임

도표 해석 시유의 24시간 구성은 가구원가중값 기반 단순 가중평균으로 요일(평일·주말) 보정을 하지 않음. 표본이 주말을 다소 과다 포함해 여가·수면·미디어는 약간 과대, 일·학습은 약간 과소될 수 있으나 상태 간 비교의 방향성에는 영향이 없음. 회차 2014·2019·2024(신분류 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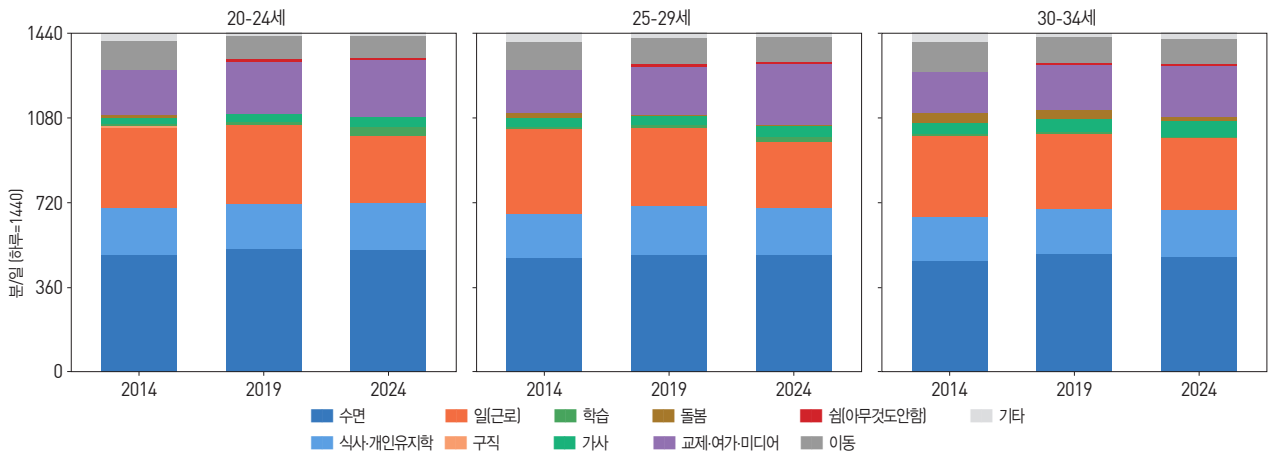


별첨 그림 1 | 재학·취업·NEET × 연령군별 24시간 시간활용 구성(2014 → 2024). 막대 합 = 1,4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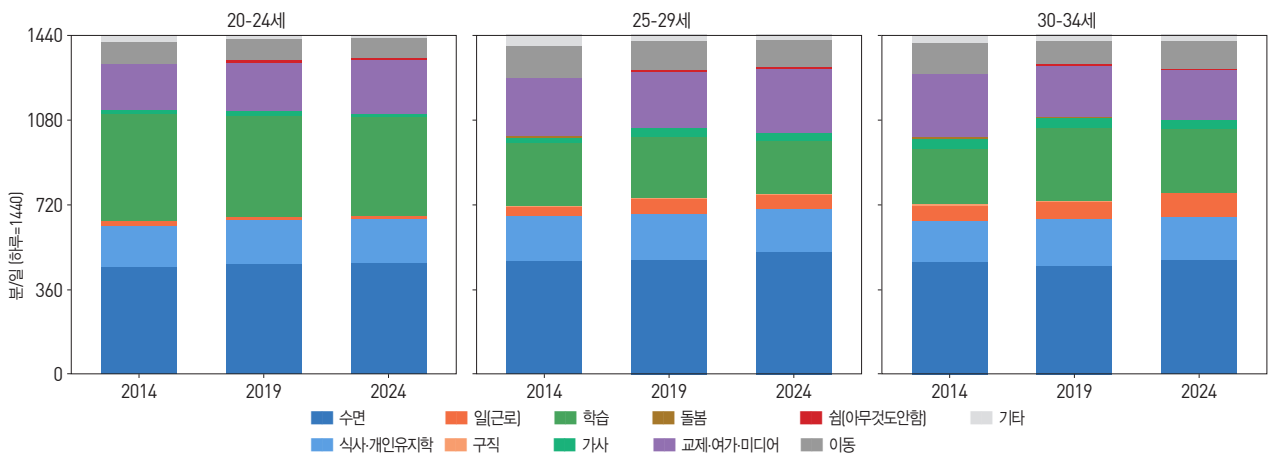
- (읽는 법) 같은 연령·연도라도 상태에 따라 색 구성이 확연히 달라짐 — 취업은 일(근로)이, 재학은 학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NEET는 일·학습이 비어 그 자리를 교제·여가·미디어와 수면이 채움. 30대 NEET에서는 돌봄 비중이 두드러져 본문 발견 2와 일치함



별첨 그림 2 | NEET 청년 24시간 시간활용 구성(연령군별, 2014 → 2024). 단위: 분/일



별첨 그림 3 | 취업 청년 24시간 시간활용 구성(연령군별, 2014 → 2024). 단위: 분/일



별첨 그림 4 | 재학 청년 24시간 시간활용 구성(연령군별, 2014 → 2024). 단위: 분/일

- ▶ 이 Issue Brief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시간량·시간대·함께있던사람, 9월 기준)를 재분석한 결과임
- ▶ NEET = 비재학·비취업. 내부 유형은 무직사유로 분해(취업준비=구직형 / 자녀양육·가사=가사·육아형 / 그 외=비활동형)
- ▶ 본 브리프는 2부작 중 [2편: NEET 청년의 하루]이며, [1편]은 청년 이행기 지형을 다룸. 말미 [별첨]은 상태별 24시간 절대 구성 원자료 도표임